



2019~2025
아동·청소년 문화 지원사업 사업보고서



2019~2025
아동·청소년 문화 지원사업 사업보고서





◆ 인사글	02
◆ 기관소개	04
◆ 사업소개	06
◆ 사업성과	08
◆ 우리에게 '문화와 룰루라라'는?	10
◆ INTERVIEW 1 “아동의,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문화와 룰루라라”	18
◆ INTERVIEW 2 “매주 월요일, 우리는 시인이 된다”	24
◆ STORY '문화와 룰루라라'의 순간들 [2019] 오늘도 버스킹합니다 [2020] 우리가 준비한 특별한 파티 [2021] '그려 DREAM'이 남긴 것 [2022] 꿈이 시작되는 랜선만남 [2023] 사진에 담은 빛나는 순간 [2024]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시간	28
◆ 포토에세이	40
◆ 참여기관 리스트	44



아동·청소년 문화 지원사업 '문화와 룰루라라'

'문화와 룰루라라'는 문화와 '함께하라', '즐겨라'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욕구를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인사글



아름다운재단은 2000년대 초 공부방으로 불리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며 아동·청소년이 돌봄을 넘어 ‘삶의 가능성’을 만나는 일에 마음을 다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작았지만, 아동·청소년이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은 그 믿음 위에서 자라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이어진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이 단순히 문화를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여정이었습니다.

현장의 지역아동센터와 예술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며 아동·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문화적 권리를 경험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시간의 기록입니다. 모두의 손길로 만들어진 변화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그 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웃음, 현장의 열정,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회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와 복지가 만나는 지점을 넓혀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사무총장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연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중단 없이, 더욱 촘촘하게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에 맞춘 돌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진 아름다운재단과의 7년간 파트너십은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난 7년간 양 기관은 <문화와 룰루라라>를 통해 단순한 문화예술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이루며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아동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성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그들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진정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노력하며 문화가 차별 없이 제공되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 문화 지원사업 ‘문화와 룰루라라’를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주신 아름다운재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이 여정을 기쁘게 함께해 준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이사장



기관소개

아름다운재단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하는 공익재단입니다.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참여와 나눔을 이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변화와 연결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두가 가진 선의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참여의 장을 마련해 자발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곳곳의 주의를 깊게 살피고 우리가 하는 일이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부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허황된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작은 일에서 정책과 제도 변화까지 끈기 있게 나아갑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에, 아름다운재단이 먼저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사람을 넘어 환경까지 아우르며, 모두를 위한 변화를 만들고 연결하겠습니다.



기관소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2003년 3월 설립되어, 2006년 3월에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의 전국 단위 연합조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필요한 돌봄과 교육,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센터들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질 높은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04

05

정책·기획

현장 전문가, 학자, 단체와 연계하여
빈곤 아동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기획 사업 전개

교육·훈련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훈련 등 사업 전개

나눔·배분

민간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자원을 모아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지원

문화·홍보

지역아동센터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문화 및 홍보 활동 전개

사업소개

아동·청소년 문화 지원사업

'문화와 룰루라라'는?

아름다운재단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아동·청소년 문화 지원사업 '문화와 룰루라라'는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 없이, 아동·청소년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지원합니다. 문화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이 미술, 음악, 문학, 놀이·체험 분야에서 자신의 개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비용과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

◆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 기획 활동비 : 아동·청소년 자치회의, 아이디어 회의 등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운영비
- 프로젝트 운영비 : 재료비, 체험비, 전문 강사비, 대관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

◆ 지역아동센터 역량강화 지원

- 전문가 멘토링 : 미술, 음악, 문학, 놀이·체험 등 분야별 전문가 교육 제공
- 담당자 교육 : 사업 수행 역량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교육
- 성과공유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별 문화예술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 및 공연 운영

지원 대상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사업
타임라인

* 2004 - 2011 변화의 씨앗을 심다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지원사업(79개소 지원)

문화소외지역 아동·청소년에게 동아리 활동 등 문화예술의 첫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된 특기를 개발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우는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 2012 - 2018 더 넓은 세상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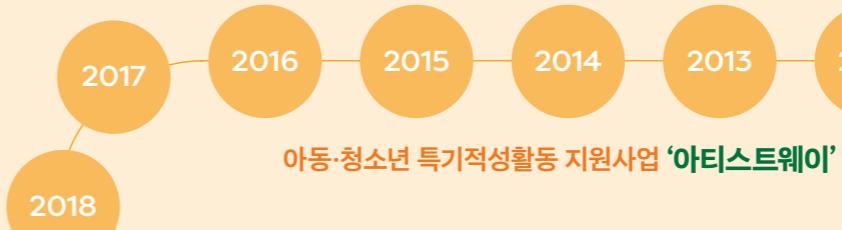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지원사업 '아티스트웨이'(299개소 지원)

이전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아하) 콘서트'를 더하여, 아동·청소년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넓은 무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2019 - 2025 스스로 즐기는 문화를 만들다

아동·청소년 문화 지원사업 '문화와 룰루라라' (235개소 지원)

자기주도적 활동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찾아가는 멘토링', '랜선만남' 등으로 전문가를 연결하고 센터 역량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현황



문화예술 프로젝트 영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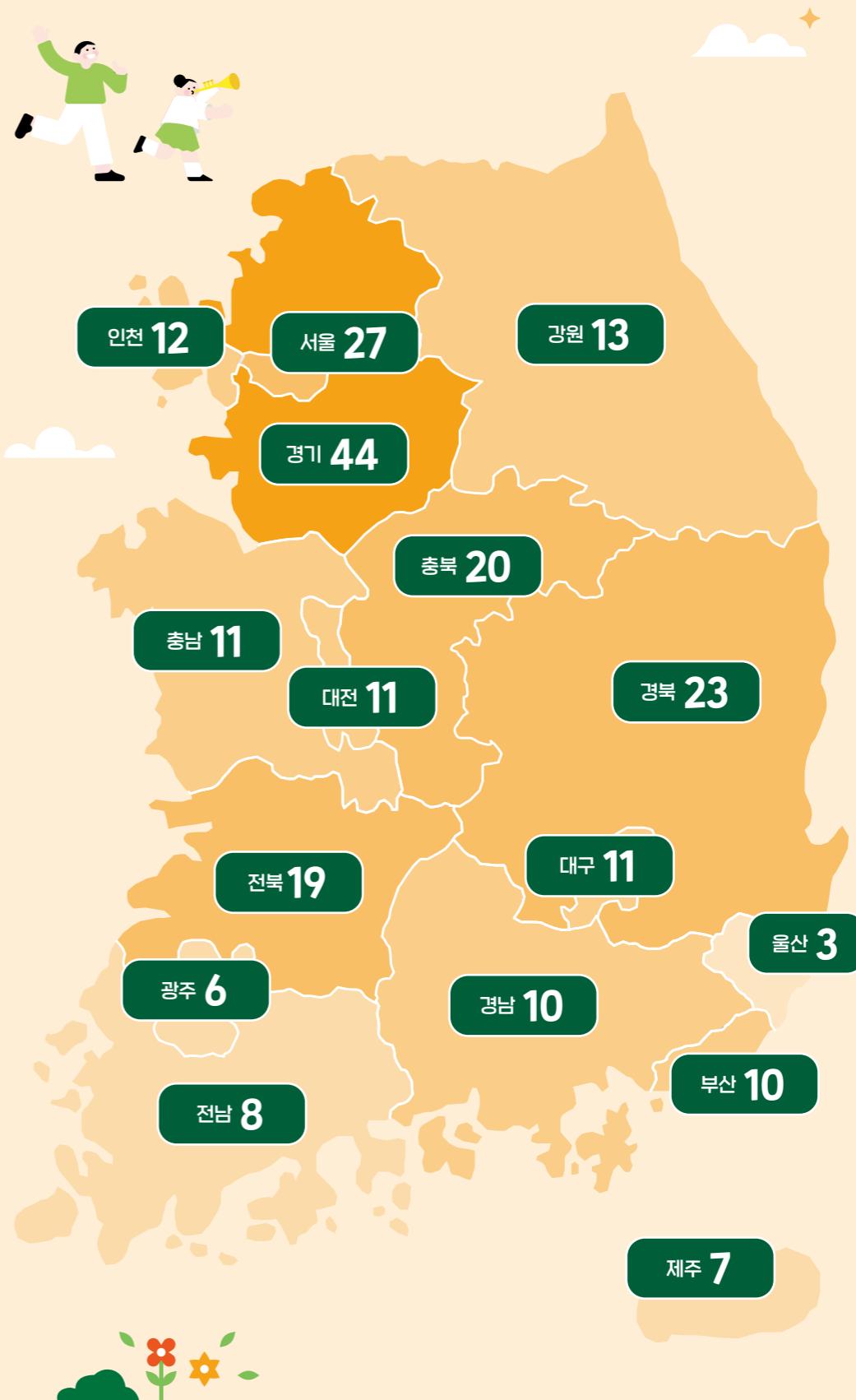
연도별 지원금



지원 현황



권역별 참여기관 수



우리에게 '문화와 룰루라라'는?

다년간 '문화와 룰루라라'와 함께 성장해 온 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0

우리에게 '문화와 룰루라라는?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나눔과 기쁨



나운지역아동센터

2020 반려식물과 친구해요 (원예가꾸기)

2021 나운별들은 매일 룰루라라 (마을 '해바라기 길'조성)

2023 나운별과 같이 하실래요? (지역사회 문화공유 활동)



"선생님, 이제 '문화와 룰루라라' 안 해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아이들은 종종 그때를 그리워하며 묻곤 합니다. 교사인 저에게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지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의견이 실현되는 기쁨을 맛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때 시작된 원예 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져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년생 식물들이 해를 거듭하며 번식해, 작년에는 센터가 있는 아파트 단지 화단에 이웃들과 꽃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가보니 우리가 심은 시레네와 우단동자가 활짝 피어 있더군요. 아이들이 가꾸고 나눈 그 마음처럼, 화단도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나운지역아동센터 선생님



11

우리에게 '문화와 룰루라라는?

무대 위에서 만난 새로운 꿈



드림지역아동센터

2022 '헤이마마' 댄스 도전기 시즌1

2023 '헤이마마' 댄스 도전기 시즌2

2022년부터 2년 간 이어진 댄스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협력하며 무대를 완성했고, 2023년 '나다운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활동 영상을 보며 벅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부족했던 한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무대를 경험하며 "춤추는 내 자신이 좋다"고 말하게 되었고, 이제는 배운 안무를 친구들에게 직접 가르쳐 줄 만큼 의젓하게 성장했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춤추며 자라고 있습니다.

드림지역아동센터 선생님

우리에게 '문화와 룰루라라'는?

다년간 '문화와 룰루라라'와 함께 성장해 온 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2

우리에게 '문화와 룰루라라는? 용기를 키워준 긍정의 씨앗

보라매지역아동센터

2021 보라매 환경지킴이 1기

2022 보라매 환경지킴이 2기



2021년 '보라매 환경지킴이 1기'로 활동했던 고사리손 꼬마들이 어느덧 의젓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그때를 추억해보니, '문화와 룰루라라'는 환경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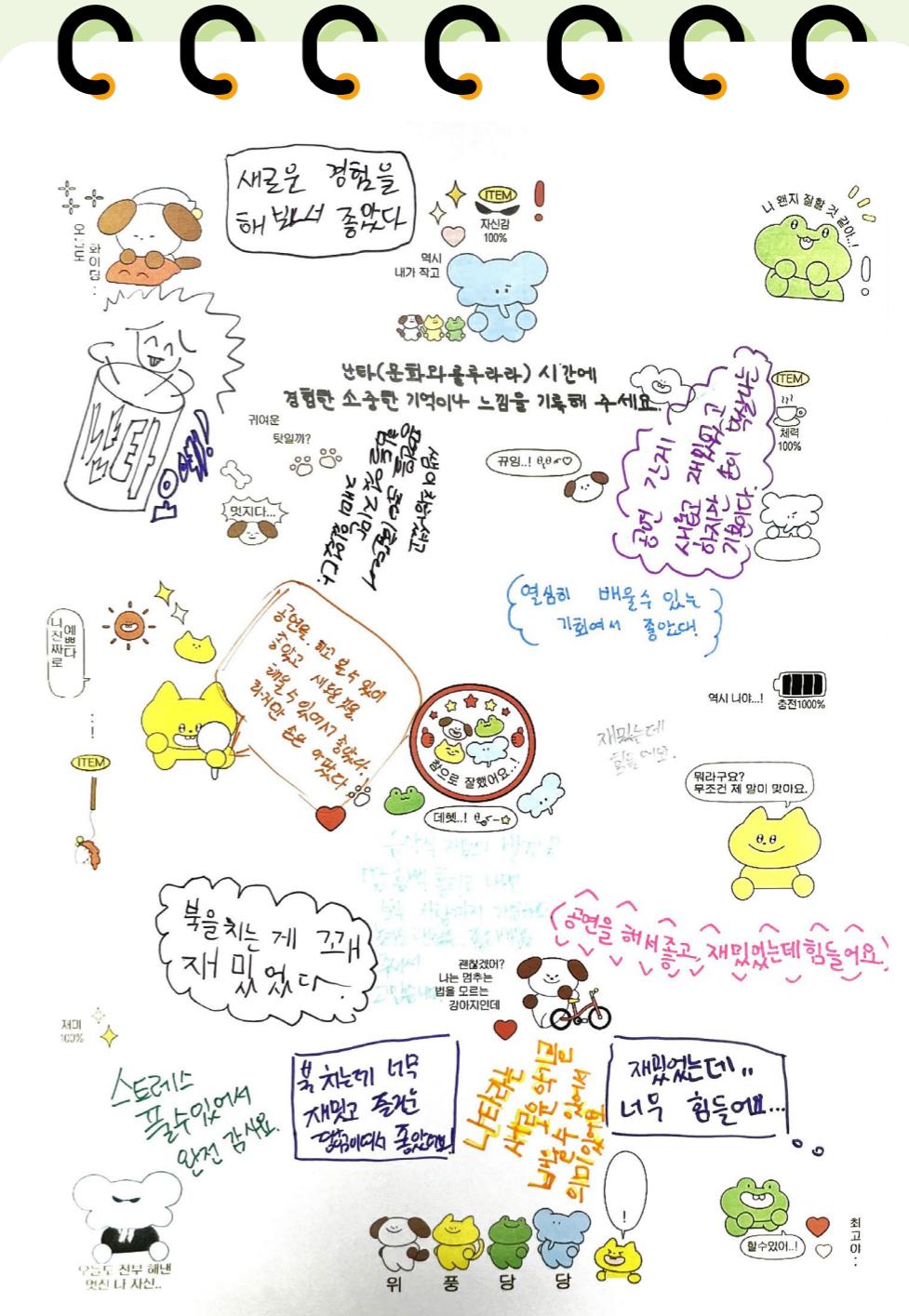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캠페인 활동이 부끄러웠지만, 할수록 용기가 생겼어요." 한 아이의 고백처럼, 2년의 경험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도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때 심어준 긍정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합니다.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매지역아동센터 선생님

2025년 '문화와 룰루라라'와 함께한 3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온 메시지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2025년 '문화와 룰루라라'와 함께한 3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온 메시지

◆ 구립가재율지역아동센터

난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악기를 배울 수 있어서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공연을 준비할 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난타 악기를 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무엇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 가마지역아동센터

미적 감각과 지식을 늘릴 수 있었고, 창의미술을 통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많은 미술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어서 더 흥미로웠어요.

◆ 위더스틴즈지역아동센터

다른 아이들과 협력하며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공부가 힘들긴 하지만,
문화 활동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 늘푸른교실지역아동센터

연극 활동을 처음 경험하여 어색함을 극복하고, 즐겁게 발 표회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 소하지역아동센터

'광명에서 떠나는 역사여행'으로 광명에서 경주까지 여행하며 소속감과 자부심을 키웠습니다.

◆ 장성지역아동센터

바닷가 스케치를 하며, 자연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에 밀려들어 세상에서 자신의 작은 등불을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 한무리지역아동센터

업사이클링, 릴스 제작, 줍깅 등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소외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공립벤엘지역아동센터

사진동아리 '오나사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함께 계획하여 여행하고 사진 찍는 경험으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 늘푸른(인천)지역아동센터

동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표현하고, 다른 활동도 함께 어울리는 대기분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 늘푸른(충주)지역아동센터

'마음놀이' 동시교실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스스로 표현하는 힘을 길렀습니다.

◆ 베다니지역아동센터

'나트로그' 프로그램을 통해 뜨개로 활동을 기록하며 자기표현과 성취감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 드림지역아동센터

수동적이던 아이들이 뮤지컬 수업과 '작은 음악회' 개최 등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미래와 꿈에
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 사랑마을지역아동센터

'별빛캘리그라피' 활동으로 서툰 별글씨가 개성 있는 작품으로 완성되며 아이들의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 서창(경남)지역아동센터

댄스버스킹 공유회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 선단지역아동센터

다양한 밤달 특성을 가진 아동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스스로 표현 하려는 중요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 시립도담성남동지역아동센터

매년 사진 찍고 동시를 쓰는 활동을 통해 시집 밤간, 전시회 개최 등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유달지역아동센터

도자기를 만들고 정성을 쏟으며 인내심과 성실함을 쌓아나릅니다. 창의력을 발휘하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 은성지역아동센터

과학과 예술 융합 활동 및 패션쇼 발표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 주양교육문화원지역아동센터

'정크아트' 활동으로 폐품을 창의적으로 재탄생시키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자리잡았습니다.

◆ 해님지역아동센터

영상동아리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표현력을 키우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 희망지역아동센터

연극 교실의 신체/발성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 사랑마을지역아동센터

'별빛캘리그라피' 활동으로 서툰 복글씨가 개성 있는 작품으로 완성되며 아이들의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 높은뜻마중학교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행복하게 연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 기린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여 지역 10개(전주)를 동시에 꺼내는 활동을 통해 만족감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 영재지역아동센터

중학생 7명과 초등 고학년 8명이 '드론 비트로 날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드론 안무를 짜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업하며 K-POP과 결합된 활동을 즐겼습니다.

◆ 꿈꾸는지역아동센터

'줍깅' 등 활동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 임감을 느끼는 소중한 계기를 가졌습니다.

◆ 서창(인천)지역아동센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웃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열린지역아동센터

함창 수업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우리'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 푸른풀밭지역아동센터

그림책 활동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며 상상력, 공감 능력, 배려심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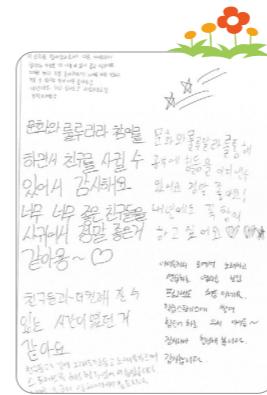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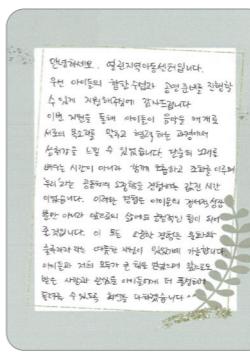
푸른풀밭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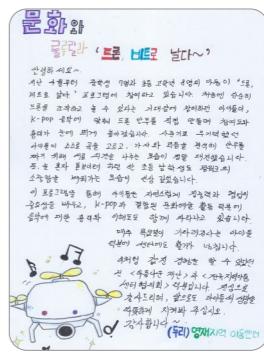
사랑마을지역아동센터



위더스틴즈지역아동센터



열린지역아동센터



영재지역아동센터

-공지일-

INTERVIEW 1 아동의,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문화와 룰루라라



18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사무총장아름다운재단
김혁진 배분위원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사무총장

20년 전만 해도 ‘문화’와 ‘지원’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문화가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 ‘문화지원’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그때 아름다운재단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용감하게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04년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사업으로 시작했으니, 헛수로 벌써 21년째다.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는 아름다운재단에서도 이 사업은 설립 초기부터 이어진 ‘초장수 아이템’이다.

역사가 길다는 것만으로 사업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초기의 방식을 고민 없이 반복할 경우 오랜 전통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한다. 이 함정을 피하고자 아름다운재단과 전지협은 매년 현장의 의견과 사회적 변화를 사업에 반영했고, 그러한 노력에 비례해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한번 큰 도약에 나섰다. 사업 전반에 ‘아동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지역 내 나눔 활동과 연계하기로 했다. 사업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문화와 룰루라라’라는 예쁜 새 이름도 달았다.

어느새 2025년, 다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갓난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이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시간이 벌써 지났다. 그동안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은 어떤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했을까? 어떤 성과를 얻었으며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 오랜 시간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의 기획과 운영, 심사와 평가 과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아름다운재단의 김혁진 배분위원과 김진아 사무총장, 전지협의 최선숙 사무총장이 질문에 답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문화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진아 아름다운재단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지원사업을 시작한 게 2004년이에요. 재단 창립이 2000년이니까 정말 초창기 사업이죠. 재단에서도 이렇게까지 오래된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가 있는 사업들은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과 환경에 있든 아동·청소년이 문화적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이들은 공부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골목이나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함께 사고도 좀 치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제한받는다는 것은 곧 ‘아이들이 기본적 권리를 공평하게 누리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김혁진 문화 지원을 단지 ‘소외계층’만을 위한 시혜적 사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편견과 낙인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동돌봄시설입니다. 전국에 4,000개소가 넘는데, 당연히 이곳의 아동·청소년이 저마다 하고 싶은 문화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성장하도록 우리 사회가 기회를 제공해야죠.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문화 지원사업은 결국 모든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은 지역에 따라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거든요. 농어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다른 시설이나 인프라가 위낙 부족하니까요. 지역아동센터 문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아동들이 더 고르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선숙 아동·청소년은 끊임없이 발달하면서 어른으로 성장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초등학생·중학생 나이인데요. 그야말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와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이때는 특히 문화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이후의 삶에서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죠. 게다가 지역아동센터에는 참 다양한 아이들이 다니는데요. 그중에는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정서적 안정감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무척 소중합니다.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9





20년 전과 달리 유사한 사업이 많아진 요즘,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혁진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의 핵심적 가치는 '아동의 자기주도성'이에요. 제가 맡고 있는 사업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센터의 담당자, 즉 어른들이 쓴 제안서를 보고 심사를 하는데요. 이때 센터의 아동·청소년이 어른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주인으로 참여하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성에 관한 생각·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제안서, 아동·청소년과 함께한 센터의 경험이 잘 녹아든 제안서를 뽑는 것이죠.

최선숙 다른 문화 지원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돌봄을 제공받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문화를 소비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죠. 단순 문화 체험을 한다거나 행사를 관람하는 식으로요. 반면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에서는 아동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내에서 활동을 펼

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버스킹 공연을 한 뒤 수익금을 지역에 기부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벽화를 그리거나 전시회를 열기도 하면서 문화 활동의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합니다. 사업 평가를 할 때도 아이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다른 사업은 아이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답정너'처럼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와 룰루라라'에서는 아이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자세히 묻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합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이 해오던 기존의 특기 적성활동 지원사업과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을 비교해 보면, 이전 사업에서는 사실 아동의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해진 몇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고르는 정도였죠.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면서는 이 부분을 크게 개선하여 '아동의 자기주도성'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와 나눌 방법도 고민했고요. 또 문화 체험을 더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랜선 만남'은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을 온라인에서 연결해 만나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를 지원할 인력이나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문화 접근성이 제한적인 지역에 사는 아동·청소년도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어떤 직군의 강사를 섭외할지 아동·청소년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정했답니다.

'아동의 자기주도성'은 정말 훌륭한 가치이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에 녹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나요?

최선숙 예, 각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아동의 자기주도성'을 다소 뜯구를 잡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담당자가 많이 고민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봐도 막상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그 과정과 결과물이 애초에 생각한 그림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연속 참여하는 센터는 전년도 평가와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매년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꿔야 하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찌보면 현장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오히려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에 선정된 다음에 더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현장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난 7년간 사업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김혁진 관련 이론을 찾아보면, 아동·청소년의 참여 방법론은 8단계로 나누는데요. 재미있는 점은요. 100% 아동·청소년이 주도하는 건 7단계라는 거예요. 온전히 아이들끼리만 활동하는 거니까 이게 최고 단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참여의 완성인 8단계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에게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넘기는 게 아닌 파트너십을 이

루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의 역량이나 준비도 필요하고요. 아동·청소년이 실패하는 동안 믿고 기다리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동에게는 실패조차 소중한 경험이라 성과가 되니까요. 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김진아 대부분 사업은 형식과 내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할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사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해요. 아무래도 현장의 담당자 선생님들에게는 우리의 사업 방식이 굉장히 낯설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이 많이 알려져서 문화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모로 참 어렵게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의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 사업 하길 참 잘했어'라고
생각한 적은 언제일까요?**

최선숙 아동·청소년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고 도슨트까지 맡는 모습을 볼 때 참 뿌듯해요. 문화 활동을 지역 내 나눔 활동으로 연계하다 보니,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센터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마을을 오고 가면서 자신의 그림을 마주해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벽화를 보면서 '내 활동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켰구나'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처럼 프로그램에 자기 의견이 반영되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니까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 사업 하길 참 잘했다' 싶어요. 사실 현장의 센터들이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프로그램 지원비를 충당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정부 지원만 받으면 아동 한 명에게 쓸 수 있는 비용이 하루에 400~5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센터에서 처음엔 부족한 운영비 때문에 시작했더라도,

사업 과정을 거치며 아동의 자기주도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진아 여러 가지 시도와 사례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최근에 열린 '나다운 사진전'이에요.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에 함께한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문화 활동을 사진으로 담은 행사였어요.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세상을 창의적으로 읽어낼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가능성의 큰 아이들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사업에 대해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즐겁게 문화 활동을
펼쳐나갈 아동·청소년과 현장의
각 센터의 담당자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김혁진 사업에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에게는 "문화와 룰루라라는 세상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문화와 룰루라라'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삶을 나누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에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못한 선생님들 에게도 말이에요. 어쨌든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웃음) 이 시간이 선생님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경험이길 바랍니다.

최선숙 '문화와 룰루라라'에 함께한 아동·청소년이 앞으로 살면서 '아, 내가 이런 활동도 했었지. 내가 직접 만들어낸 결과야. 그때 참 재미있었어'라는 좋은 기억과 감정을 품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지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기운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 센터들에게 여러모로 참 어려운 사업일 텐데요. 각 센터의 담당자 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너무 묵묵히 잘 해내고 계세요. 이 기회를 빌려서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진아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원하는 게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참 좋았던 선생님, 이런 작은 기억들이 저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문화와 룰루라라'와 함께한 아동·청소년이 작은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도 아주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쪼록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글 박효원
사진 김권일

매주 월요일, 이곳의 아이들은 시인이 된다.

도담성남동지역아동센터(2022~2025)
손나경 사회복지사



24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아담한 건물. 도담성남동지역아동센터에서는 월요일마다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의 동시 수업이 열린다. 골목에서 마주친 들꽃 한 송이, 사랑하는 엄마의 뒷모습,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동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아이들은 매주 재미난 주제에 맞춰 시를 짓는다.

아이들에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시를 잘 아는 전문적 강사의 지도가 필요했는데, 지난 2021년부터는 아름다운재단과 전국아동지역센터협의회가 함께 하는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강사료 부담을 덜었다. 달라진 건 비용 말고도 또 있다.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문화와 룰루라라'의 사업 방향은 아이들은 물론 센터에게도 도전이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멘토링과 교육을 받다 보니 센터 담당자의 역량도 함께 성장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쑥쑥 자랐다.

시인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매주 시인이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시에 담아내고 있을까? 시와 함께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 도담성남동지역아동센터의 손나경 사회복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진과 동시쓰기를 접목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하나요?

수업은 외부 강사로 시 선생님이 오셔서 진행하는데요. 일단 주제에 따라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찍을 때 감정이 어땠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걸 글감으로 삼아서 시를 쓰는 거죠.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진 잘 찍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이 사진을 잘 찍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찍어온 사진들이 너무 예뻐요. 원래는 아이들의 휴대폰 사진첩을 보면 게임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정말 많았어요. (웃음) 그런데 동시 수업을 하면서 점점 사진이 다양해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만든 시로는 한 달에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요. 옛날에 시와 그림을 함께 엮어 시화전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림 대신 사진을 넣고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공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요. 배경음악 하나도 신중하게 고르고요. 시 자막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효과를 넣기도 하죠. 감상회를 하면 다른 아이들의 작품을 보고는 "나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면서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시를 모아서 매년 전시회도 하고 시집도 냅니다.

주로 어떤 주제가 나오나요?

제일 쉬운 건 '꽃'이고요. 다양하게 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주제로 나왔는데, 보통은 휴대전화더라고요. (웃음) 다음으로는 인형이 많고요. 한 번은 트렌드에 맞춰 '네컷' 사진도 시도했어요. 같은 피사체를 멀리서도 찍고 가까이서도 찍는 식으로요. '동물의 시선'이라는 주제도 있었네요. 동물이 볼 수 있는 색깔 범위에 맞춰서 흑백으로 찍거나 아예 더 알록달록하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개나 고양이처럼 풀짝풀짝 뛰면서 찍기도 해요. 한 아이는 고양이처럼 차 밑에 들어가서 찍더라고요. 전 이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귀엽네요. 수업 분위기나 아이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시를 쓰는 수업이지만 조용하게 글에 집중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조용'이 안 돼요. (웃음) 그냥 시만 쓰자고 하면 아마 수업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소 자유분방하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뭘 쓸지 유난히 오래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평소에는 잘 쓰는데 종종 시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재촉하지는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나 보다' 그리고 맙니다. 아이들은 동시 수업이 정말 좋다고, 월요일이 제일 재미있다고들 해요. 어떤 아이는 자기가 쓴 시를 좋아해서 줄줄 외울 정도예요. 심지어 더는 수업 대상이 아닌 5학년 아이가 '나도 시를 썼는데 시집에 넣어줄 수 있나'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도 당연히 좋아졌죠. 어떤 아이는 매주 시를 거의 완성하지 못하고 글도 정말 서툴렀거든요. 그런데도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더니 다음 해에는 글이 조금 늘더라고요. 시 감상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귀 기울이면서 이해하는 기회도 돼요. 평소에 말이 너무 없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아이가 있었는데, 작품을 발표하면서 조금씩 말수가 늘고 활발해졌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도 보람차게 프로그램을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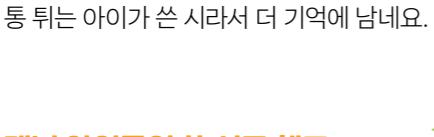


매년 아이들이 쓴 시로 책도 내고, 지역 내에서 성과공유회도 하신다면서요. 참 뿌듯하시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어려워요. 저는 이 작업이 되게 떨리더라고요. 전시회는 장소 선정부터가 참 어려워요. 매년 도서관에서 열었는데 지난해는 그게 잘 안돼서 시청에서 행사를 했어요. 아예 더 큰 데로 간 거죠. (웃음) 사진과 시를 액자에 담아서 전시하고, 시를 쓴 아이들이 도슨트가 되어서 관람객에게 직접 설명도 해줬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작업은 시집이에요. 편집을 훈자서 다 하거든요.

기억에 남는 작품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가족에 대해 사진을 찍고 시도 쓴 적이 있어요. 주로 엄마에 관한 내용이 많았는데, ‘호랑이라고 쓰고 엄마라고 읽는다’라는 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무서운 분이 아닌데. (웃음) 또 다른 아이는 엄마가 한 말을 시로 읊기면서 느낌표를 그렇게 많이 붙여요. 엄마의 모든 말에 느낌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많이 아프셨대요. 설거지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고 싶은 우리 엄마’라고 시를 썼어요. 활발하고 통통 튕는 아이가 쓴 시라서 더 기억에 남네요.



아이들이 쓴 시를 하나하나 타이핑하고 사진도 함께 넣어요. 아이들이 만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QR도 만들고, 오탈자도 여러 번 검토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누구나 자기 작품이 많이 실리길 바라잖아요. 부모님도 ‘우리 아이 작품이 얼마나 많이 실렸나?’하고 유심히 보고요. 그래서 되도록 시를 골고루 담고 싶은데, 완성된 시가 얼마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시 선생님은 ISBN(국제표준자료번호)을 발급받아서 우리 시집을 정식 출판물로 등록하고 하시는데 … 아무래도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웃음)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에서는 아이 들의 자기주도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무척 의미 있는 사업 방향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구현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어렵긴 해요. 결국에 어른들이 주제를 정해줄 때도 있고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하고 싶냐고 꼭 물어봐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런 주제로 해 봐요” 그러면 반영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함께 정했더라도 어떤 아이는 그에 맞는 사진이나 시가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영상도 너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재단은 남들보다 먼저,
남들에게 기준이 되는, 영향력을
만든다는 ‘마중물’의 기준을
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지난 4년간 참여한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나요?**

그럼요. 아동들에게 충분히 ‘마중물’이 되고 있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다양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뭐든 시도해 봐야 늘잖아요. 때로는 칭찬도 듣고 또 때로는 실패도 겪어보면서요.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시도할 기회, 실패가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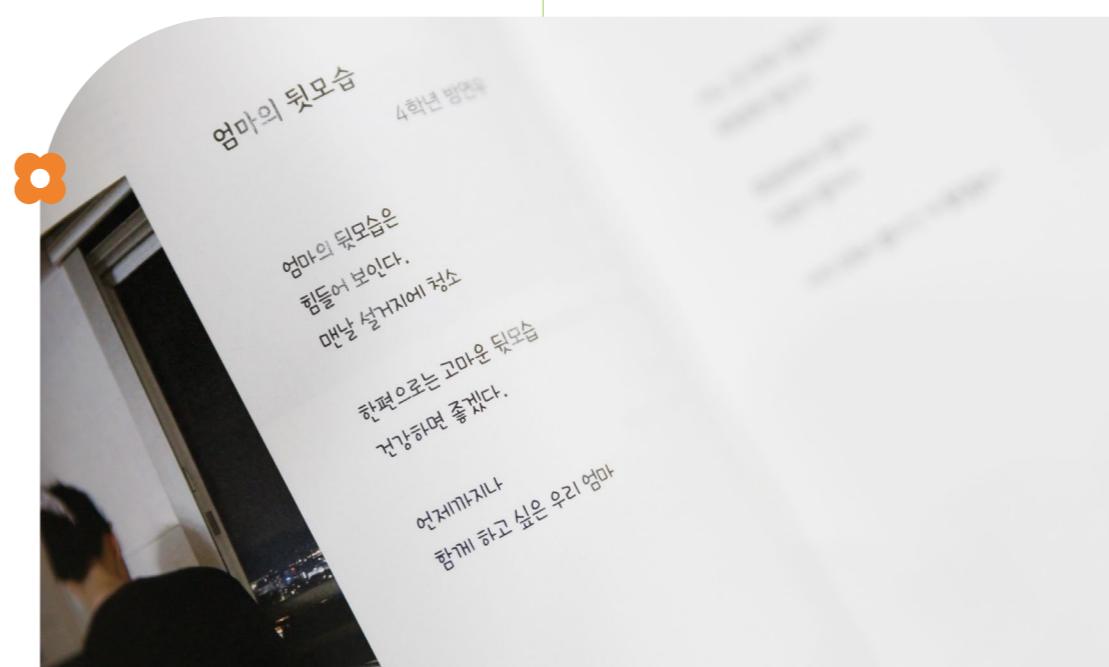
‘문화와 룰루라라’는 세부적 진행 과정도 다른 사업과는 좀 달라요. 어떤 사업들은 예결산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거든요. 룰루라라 사업은 그런 부담이 적어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간식비나 교통비처럼 세세한 부분도 꼼꼼히 지원해주시니까 편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센터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멘토링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단지 업무로만 느껴지면 힘들 수도 있는데, 들으면 ‘와 이거 정말 좋다’ 싶어요. 덕분에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시집도 많이 읽어보고,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영상은 집에 가서 우리 애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웃음)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 역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센터의 동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한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으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초등학생 시절에 우리 센터를 다니던 중학생 아이를 최근에 만났는데요. 공부는 재미없는데 센터 활동은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동영상 촬영이 좋았던지 나중에 직업으로 피디도 해보고 싶대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곳의 경험이 인생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와 룰루라라’ 사업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1/10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의 경험이 두고두고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글 박효원
사진 김권일



STORY

'문화와 룰루라라'의 순간들

'문화와 룰루라라'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매년 새로운 활동을 통해 성취의 기쁨을 맛보고, 함께 웃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지난 7년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중 일부분을 통해 '문화와 룰루라라'가 남긴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문화와 룰루라라 문학 수업



우리동네를 담은 작품 전시

2019 오늘도 버스킹합니다♪



2019년의 어느 토요일 아침, 부산 동래역 1번 출구 앞에 작은 악단이 나타났습니다. 고사리손으로 바이올린 활에 송진을 바르고, 악보를 체크하던 아동·청소년 단원들. '보금자리 악단'의 첫 거리 공연(버스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3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악보조차 볼 줄 몰랐습니다. 김미숙센터장은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아는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으로 악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변화는 '문화와 룰루라라'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강사의 1:1 레슨이 더해지자 울상이던 단원들의 표정이 밝아 졌습니다. 실력이 느니 흥미가 생겼고, "연습만이 살길"이라며 스스로 활을 잡는 단원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연주하면 제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합주는 친구 소리를 들어야 해요. 누군가 실수해도 우리가 다 같이 연주하고 있으니까 다시 따라올 수 있게 기다려줘요."

거리 공연은 변수의 연속이었지만, 단원들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아리랑 변주곡>을 끝까지 연주해냈습니다. 누군가 틀려도 지적하기보다 눈짓으로 격려하는 법을, 단원들은 교실이 아닌 거리에서 '진정한 화합'을 배웠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했던 바이올린 소리는 멈췄지만 그때 아동청소년이 배운 '함께의 가치'는 지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변주곡으로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글 우민정





30

2020년 10월, 마스크가 일상이던 시절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는 마법 같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할로윈을 상징하는 주황색과 검은색의 풍선과 호박 인형, 거미줄로 장식된 포토존이 동탄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영화 세트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실감 나는 할로윈 현장을 만든 당사자들은 바로 동탄시에 사는 장애 청소년들이 모인 '파티 플랜 봉사단'입니다. '문화와 룰루라라'에 참여하여 파티 플랜을 배우고, 풍선 장식부터 가랜드, 호박 인형, 거미 모빌 등 소품 하나하나 손수 만들었습니다.

차례로 줄을 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나오면 기다리고 있던 파티플랜 봉사단의 멤버들이 사탕과 초콜릿이 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참여했는데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까지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우리 아이는 남에게 무언가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있다 해도 항상 만나는 친구들만 만났고요. 우리 아이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어요." - 참여아동 어머니 이경희 님



31

참여아동 어머니 김정인 님은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자녀가 다른 친구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변해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파티 플래너 선생님이 섬세하게 가르쳐 주고, 차분히 기다려주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파티를 사랑하는 이유는 만드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파티란 단어를 낯설어 했어요. 자연히 참여도 소극적이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파티에 온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할래요', '저도 도와주세요'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요."라며 오은경 파티 플래너 지도자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누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 파티이지요.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시기, 아동청소년은 파티를 통해 이웃과 안전하게 연결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숨은 역량을 깨우고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글 우민정



2021 '그려 DREAM'이 남긴 것

32

2021년, 시립문래청소년센터의 '그려 Dream 시즌2' 현장은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의류 커스텀(타이다이, 전사지, 에어브러시 등) 활동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와 룰루라라'를 함께해온 강진우 선생님은 이번 활동의 핵심은 자율성이라 강조했습니다. 배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최대한 정해진 틀이나 규칙 없이 청소년이 가진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친구가 타이다이, 전사지, 마카, 잉크, 에어브러시 등 다양한 기법을 구사해요. 오늘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변신해 초대한 친구들에게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주는 날이죠. 결과물을 보면 알겠지만 다들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고 열정적이에요." - 강진우 선생님



33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은 "기법을 처음 배우던 날 주사기로 색소를 주입하다가 입고 있던 노란색 옷에 물감이 다 튀었어요. 어떻게 하나 당황했는데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예쁘게 염색해 주셨어요. 마법 같은 일이었죠. 그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게 되겠구나, 하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끔 꺼내보며 추억하고 싶어요." 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장은 작업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든 티셔츠를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선물하며 '받는 기쁨'보다 큰 '나누는 성취감'을 배웠습니다. 문화예술이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영양분임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글 김유진
사진 이현경



2022 꿈이 시작되는 랜선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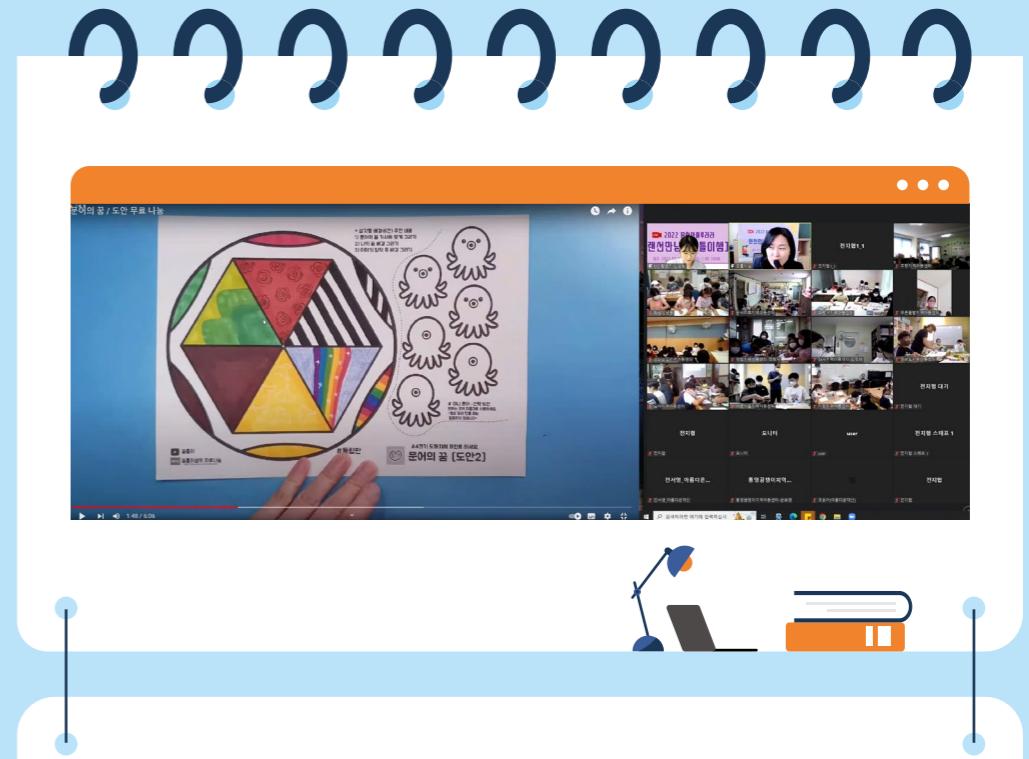
34

첫 번째 만남의 주인공은 아동·청소년 콘텐츠계의 ‘무한도전’이라 불리는 유튜버 ‘슈밸맨’이었습니다. 슈밸맨(허영식, 한동욱)은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로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00개가 넘는 영상을 제작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들려준 그들은, 유튜버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도전정신, 기획력, 편집기술’을 꼽았습니다. 슈밸맨은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 한 스텝, 한 스텝 성실하게 내디뎌야 하듯, 오늘과 내일의 시간에 충실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학교생활과 일상에 충실히 보면 어느새 꿈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예요. 당장 유명해지겠다는 조바심보다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먼저 했으면 해요.”

“저도 어릴 때 꿈이 없었어요. 직장생활과 장사를 거쳐,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웃음과 긍정의 힘을 나누어 주고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꿈을 이룰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꿈이 없어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도 슈밸맨의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며 밝고 긍정적인 슈밸맨의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동 미술의 놀이터’라 불리는 인기 유튜버이자 현직 교사, ‘꿈틀이샘’을 만났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던 만큼 시작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재미있게 미술을 가르칠 방법을 떠올리면서 미술 자료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들께 자료를 나누다가,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라며 어린 시절의 꿈을 접었다가, 교사가 된 후 다시 꿈을 이루게 된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꿈을 갖기 전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꿈 곳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밀노트에 내 생각이 담긴 스케치나 짧은 글을 남겨보세요. 글을 쓰면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많은 작품을 보며 시야를 넓히고, 그 속에 내 생각을 담아 재구성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만의 작품세계가 생길 거예요” 라며 미술 분야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나만의 비밀노트’를 제안했습니다.

랜선만남의 경험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꾸게 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심은 긍정의 에너지가 지금도 아동·청소년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 김유진

35



2023 사진에 담은 빛나는 순간

36

문화와 예술은 마음을 부드럽게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2023년, 서울숲 언더스탠드애비뉴를 가득 채웠던 485명 아동·청소년의 시선을 담은 결과공유회 ‘나다운 사진전’에서 그 힘을 확인했습니다.

전시는 빛의 삼원색(빨강, 초록, 파랑)과 하양을 테마로, 미술·놀이·음악·문학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단순한 기록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의 표정과 동작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며 완성한 ‘작품’들이었죠.

‘나다운 사진전’의 모든 작품에는 큐알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큐알코드에 접속하면 해당 센터의 아동·청소년이 도슨트가 되어 작품을 소개합니다. 영남 사물놀이로 음악 분야에 참여한 동진주지역아동센터는 가락이 어려워 해매던 초반과 차츰 자신이 붙은 중반기를 거쳐 사물놀이 예선전에 나갔던 생생한 경험을, 한무리지역아동센터는 재활용 쓰레기와 폐품을 이용해 지구를 살리는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느낀 생생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전시회에 방문한 아동·청소년들은 사진과 큐알코드를 통해 나의 모습을 확인하며 추억을 떠올리고, 다른 친구들의 활동을 보고 들으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7

“쑥스럽긴 하지만 사진 속 제 모습이 멋져 보여 좋아요. ‘문화와 룰루라라’ 기간 동안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기른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이나 풍경을 보면 미술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상상하게 되거든요. 창의적인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 이준서 어린이

“‘문화와 룰루라라’에 참여하면서 미술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 슈링글스로 만든 드림캐쳐가 예쁘게 나와 센터에 전시한 거랑 직접 그리고 만든 타일로 센터 계단과 마을 담벼락을 꾸몄던 게 기억에 남아요.” - 송예나 어린이

“직접 와서 보니 감개무량하네요. 활동 초반 센터에 온 친구 생각이 났어요. 처음엔 작은 칭찬도 부끄러워했는데 자신감이 붙었는지 점점 적극적으로 작품도 보여주고 작품도 전시했어요. 마음이 넓고 깊게 자란 모습을 보며 문화·예술의 힘을 느꼈습니다.” - 대전가정지역아동센터 하태화 선생님

전시회장 한쪽에 놓인 ‘드로잉월’에는 ‘우리가 최고’, ‘행복한 시간’, ‘뿌듯했다’, ‘즐겁다’, ‘나는 멋지다’ 등 아동·청소년이 남긴 긍정적인 메시지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글 김유진
사진 조재우



38

‘문화와 룰루라라’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2024년 방송댄스, 창작 뮤지컬, 작곡, 진로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끌어온 4개 기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비전트리·예꿈마을·위더스틴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예술(방송댄스와 공예·창작 뮤지컬·창작곡), 진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놀이(진로체험) 분야로 활동했습니다. 4곳 모두 아동·청소년의 희망사항을 조사해 활동을 마련했고, 아동 간 활발히 상호작용·교류하며 ‘문화와 룰루라라’ 활동을 했습니다.

“10명의 아동이 창작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대에서 배우로 참여해 노래하는 데, 노래도 직접 작사했어요. 곧 마을 소극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참 좋더라고요.” - 예꿈마을 지역아동센터 김지웅 선생님

“중고생 13명이 ‘내 마음의 노래 WITHUS’라는 창작곡을 만들고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 나눠서 한 곡씩 총 2곡을 같이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미디어아트로도 만들어 보려 해요. 스트레스 해소법도 배우고, 자연스레 예술적 감수성도 풍부해졌습니다.” - 위더스틴즈 지역아동센터 조대건 선생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몰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표현해 보고 창작해보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이 골고루 향상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자치회의를 열어서 아동들에게 뭘 하고 싶은지 물어 방송댄스와 공예를 하게 됐는데, 미처 몰랐던 재능을 깨닫게 된 아이가 있어요. 의욕이 없던 아이가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가하고, ‘제가 어떻게 해요?’라던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복돋아 이끌고, 자기주장만 하던 아이는 양보하고 의견을 조율해요.” - 비전트리 지역아동센터 이경순 선생님

“언뜻 어려워 보이는 활동도 막상 해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즐거워 하더라고요. 3D펜 전문가와 같이 창조적인 활동도 참 흥미롭게 해냈어요. 앞으로도 아동들이 즐겁게 문화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돋겠습니다.” - 진건 지역아동센터 박은진 선생님

하고 싶은 게 없다거나 “못해요” “제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라고 되물던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와 룰루라라’ 활동은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을 불어넣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룰루라라’와 함께한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앞으로 더 빛나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오늘도 열띤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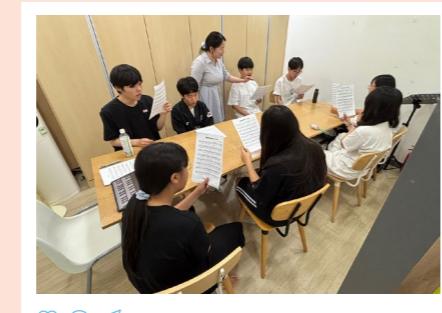
글 조승미
사진 임다윤

문화와 룰루라라 우리들의 활동





42



43



참여기관
리스트2019~2025 아동·청소년 문화 지원사업
문화와 룰루라라와 함께한 기관들

2019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 괴산 | 기쁨의 | 꿈마을 | 내외 | 늘기쁜 |
 사회복지법인현진복지재단 늘푸른아동원 | 달마학교 |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 동지 |
 반송 | 보금자리 | 부천종합사회복지관 | 비전스쿨 | 비전트리 | 산성 |
 (아동양육시설) 선린애육원 |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사단법인 새날복지회) | 소망 |
 신서 | 안중푸른학교 | 에벤에셀 | 영락모자원 | 우등생 | 월피맑은샘 | 의정부나눔공부방 |
 익선원 | 인동 | 인재 | 참사랑 | 푸른꿈 | 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성공회원주나눔의집_햇살 향상행복한홈스쿨 | 희망샘학교

2020

강원도아동복지센터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 금곡종합사회복지관 |
 기쁨의 | 나운 | 남산종합사회복지관 | 노픈누리 | 높은뜻마중학교 | 늘기쁜 |
 사회복지법인현진복지재단_늘푸른아동원 | 다평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 로뎀나무 |
 목포시청소년수련원 | 소망 | 시립문화청소년센터 | 신명나는 | 아트기버_사회적협동조합 |
 안양시만안종합사회복지관 | 안양_해오름 | 에벤에셀 | 온누리 | 우등생 | 우리동네 | 원북 |
 정읍애육원 | 창신모자원 | 천안사랑 | 충청 |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 평강의나라 |
 하래장애인 | 해남등대원 | 해바라기 | 향상행복한홈스쿨 | 호성보육원 |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흰돌행복한홈스쿨

2021

강원도아동복지센터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 기린 | 꿈을그리는동명 | 나운 | 다사 | 다평 |
 로뎀 | 목포YMCA | 목포시청소년수련원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 보라매지역아동센터 |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 섬나의집 |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사단법인 새날복지회) |
 시립문화청소년센터 | 양학 | 업드림사회적협동조합_은혜 | 예꿈마을 | 옥구 | 우리동네 |
 윤슬청소년지역아동센터 | 이삭 | 이현 | 정읍애육원 | 죽곡그린 | 청림좋은이웃 | 충청 |
 풀씨꽃피우기 | 풀씨배움터 |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 해바라기 | 해피스쿨 |
 사단법인_미래를여는아이들 | 햇살가득파랑새 | 효천해누리

44

2022

기린 | 가마 | 경주용강 | 광명시지역아동센터 | 열방사회적협동조합 글로벌 | 노아 |
 누리꿈터덕산 | 다사 | 시립도담성남동 | 드림(그래좋아사회적협동조합) | 로뎀 | 벤엘 |
 관악점프사회적협동조합 보라매지역아동센터 | 보문 | 서해아이들 | 섬나의집 | 성모 | 양학 |
 어깨동무신나는집 | 영천시야사 | 예꿈마을 | 온새미로 | 위드 | 윤슬청소년 |
 업드림사회적협동조합_은혜지역아동센터 | 이룸 | 주랑 | 지구촌 | 통영꿈쟁이 | 파랑새 |
 푸른풀밭 | 하버드 | 해님 | 화원면 | 효천해누리

2023

가마 |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 가정 | 공립군남 | 기린 | 꿈꾸는 | 나운 | 노아 |
 높은뜻마중학교 | 다드림 | 달성해솔 | 동진주 | 드림 |
 드림지역아동센터(그래좋아사회적협동조합) | 오산글로컬 사회적협동조합(매홀) | 멋진 |
 비전1318 | 성산포 | 사회적협동조합 수복 | 시립도담성남동 |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영문지역아동센터) | 예꿈마을 | 위더스틴즈 | 자주 | 정 | 주양교육
 문화원 | 죽곡그린 | 진건 | 한누리 | 한무리

45

2024

가마 | 가정 | 고현 | 광덕푸른 | 구립가재울 | 구란 | 금호윤성 | 기린 | 꿈꾸는 |
 누리꿈터덕산 | 등방 | 멋진 | 보금자리 | 비전트리 | 서창 | 선단 | 선린꿈터 | 시립도담성남동 |
 신호 | 안중방정환 | 예꿈마을 | 왜관 | 위더스틴즈 | 이포봉양 | 진건 | 파이디온 | 푸른꿈 |
 한무리 | 한음 | 효천해누리

2025

공립벤엘 | 가마 | 구립가재울 | 기린 | 높은뜻마중학교 | 늘푸른(인천) | 늘푸른(충주) |
 돌봄과배움의공동체_늘푸른교실 | 두리사회적협동조합_영재 |
 베다니사회적협동조합_베다니 | 사단법인_꿈꾸는아이들_꿈꾸는 |
 사단법인함께꿈을그리다-드림 | 사랑 | 사랑마을 | 새누리 | 서창 (양산애사회적협동조합) |
 서창(인천) | 선단(포천) | 소하 | 시립도담성남동 | 열린 | 위더스틴즈 | 유달 | 은성 | 장성 |
 주양교육문화원 | 푸른풀밭 | 한무리 | 용머리사회적협동조합_해님 | 희망

문화와 룰루라라가 만든 변화는 7년간 함께한 기관과 아동청소년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발행일 통권 316호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홈페이지 남세도

지원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아름다운재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구성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 706호, 707호

전화/팩스 Tel.(02)732-7979 / Fax.(02)732-7980

이메일 kaccc@kaccc.org

홈페이지 www.kaccc.org www.designwith.co.kr

ISBN 979-11-994276-0-0 (13060)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2025 아동·청소년 문화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